

빅데이터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2015-2021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GDELT 2.0이 제공하는 골드스타인 척도(Goldstein Scal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약 6년 6개월간 (2015.03.01~2021.09.10) 미중 관계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측정하려 시도하였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골드스타인 척도를 통해 살펴본 미중관계는 연구대상 기간동안 긍정적이었던 기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정부 간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VERBAL COOPERATION)이 가장 많은 사건유형을 기록하였다. 이는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로 미중 정부간 발생한 전체 사건에서 언어 협력이 자치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한 반면 언어 갈등(VERBAL CONFLICT) 사건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부정적인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대미 행동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중국이 점점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면 이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맞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이 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 차

- I. 서론
- II. GDELT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2015.03.01 ~ 2021.09.10)
- III. 사건 유형별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 IV. 결론

I. 서론

- ◆ 냉전의 종식 이후 1990년대 세계는 미국 단일패권의 시대를 맞이하였음. 경제 및 군사력 규모에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으며 자유라는 가치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자유시장경제라는 경제질서의 전 세계적 확산에 집중해 왔음.
- ◆ 하지만 2000년대 들어(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막대한 양의 전비를 지출하게 되었음.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면서 또 한번 국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100%를 넘어서게 되었음.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미국의 경제상황은 더더욱 안좋은 상황으로 들어섬.
- ◆ 한편, 2000년대를 들어 미국의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빠르게 악화하는 와중에 중국의 경제는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음.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미국과 견줄 정도의 세계최대무역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또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였으며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또한 성공적으로 방역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음.
- ◆ 이처럼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 미국과 매우 다른 경제성공과를 보여왔음. 그 결과 중국은(각종 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앞으로 몇년 혹은 몇십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GDP 측면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됨.
- ◆ 이와 같이 21세기 들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의 부상이 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함.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한 중국위협론(China threat argument)에 의하면 중국은 성장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며 기존 미국중심 국제질서의 변화 및 재편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Mearsheimer 2006, 2010; Roy 1994, 1996, 2005). 반면 일부 학자들은 현 국제정치 및 경제체제의 지속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함(Johnston 2003; Kang 2005; Fravel 2008; Shambaugh 2005).

21세기 들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의 부상이 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함.

- ◆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규모 차이가 작아짐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었는가. 국제정치이론 가운데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에 의하면 강대국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국가간 전쟁 가능성은 낮아짐. 그 누구도 자신의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임(Lemke and Kugler 1996, 5). 반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의하면 힘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두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짐. 두 국가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임(Organski 1968; Organski and Kugler 1980).
- ◆ 물론 오늘날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음. 미국과 중국 경제 역시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도를 보이기 때문. 하지만 중국은 성장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미중관계의 변화추세를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ocation, and Tone) 빅데이터¹⁾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미중 간 힘의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과연 두 국가 간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임.

*과연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규모 차이가 작아짐에
따라 두 국가사이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날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상황에서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이 전쟁
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음.*

*하지만 중국은 성장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현 패권국인 미국
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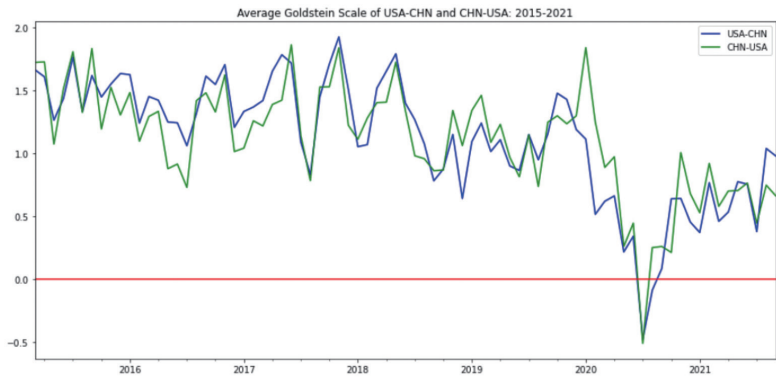
II. GDELT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2015.03.01 ~ 2021.09.10)

- ◆ GDELT는 언론기사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약 6년 6개월 간 세계 언론에 드러난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 GDELT는 행위자(Actor1)와 대상자(Actor2)를 경찰(COP), 정부(GOV), 사법부(JUD), 군대(MIL), 야당(野黨) 혹은 반정부 인사(OPP), 정부전복을 시도하는 반군(INS), 무장·폭력적 반군(REB), 분리주의 반군(SEP), 기업(BUS), 환경단체(ENV), 보건단체(HLH), 인권단체(HRI), 의회(LEG), 미디어(MED) 등으로 세부분류함.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하위행위자들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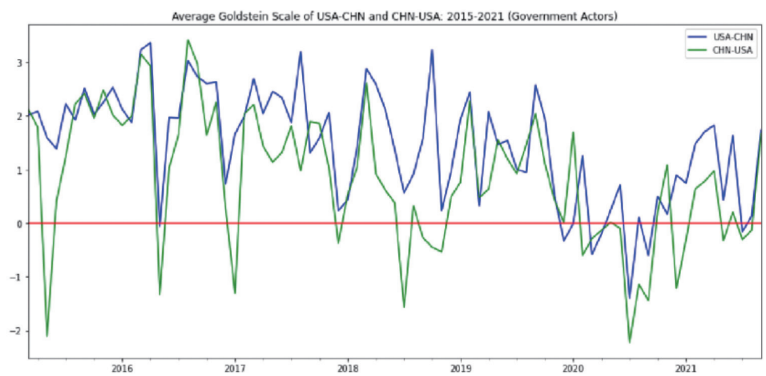
1) "GDELT에 대한 소개는 필자의 이전 JPI 정책포럼인 「빅데이터로 살펴본 한미 평화관계:2017-2020」 참고 바람."

에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였을때의 미중관계,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행위자들인 경찰(COP), 정부(GOV), 사법부(JUD), 입법부(LEG), 군대(MIL) 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수집·분석하였을 때의 미중 관계를 비교하며 살펴보았음.

〈그림 1〉 GDELT로 살펴본 미중 간 관계 변화 (2015.03.01 - 2021.09.10)



〈그림 2〉 GDELT로 살펴본 미중 정부간 관계 변화 (2015.03.01 - 2021.09.10)



◆ 〈그림 1〉은 미중 양국의 모든 행위자 간에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 미중 관계 변화양상을 나타냄. 두 국가 간의 관계는 2020년 이전까지 매일 골드스타인 척도(Goldstein Scale) 평균값 0.5에서 2.0 사이를 기록한 것으로 비추어볼때 긍정적인 편이었음. 하지만 2020년 초와 중반 골드스타인 척도평균값이 -0.5까지 하락하는 등 미중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2020년 하반기부터 미중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2021년 9월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긍정적인 관계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그림 2〉에 나타난 미중 정부간의 관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녹색선인) 중국이 행위자, 미국이 대상자일때가 (파란선인) 미국이 행위자, 중국이 대상자일때보다 부정적이었음. 즉, 중국이 미국을 향해 했던 행동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함. 중국 정부의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값은 때때로 -2.0 에서 -1.0 사이의 수치를 기록함. 이는 중국의 정부 외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포함한 <그림 1>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수치임. 한편, 다소 등락폭은 컸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미중 정부 간의 관계는 2018년 하락하기 시작함. 2018년에는 특히 중국의 대미 행동이 반대의 경우보다 부정적이었음. 이어서 2020년 초 중반의 미중 정부간 관계는 연구대상 기간(2015.03.01~2021.09.10) 중 최악을 기록함.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대중 행동은 긍정적으로 회복되어갔으나 중국의 대미 행동은 그보다 부정적인 양상을 보임.

- ◆ 종합하면, 미중 관계는 양국의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을때보다 정부 간 관계만을 살펴보았을 때 그 변동폭이 더 컸음. 미중 정부간 관계는 미중 모든 행위자 간의 관계보다 더 긍정적인 기간도 있었지만 부정적일때는 그 정도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컸음. 또한, 2020년 초중반 미중 정부간 관계는 미중 모든 행위자 간의 관계보다 더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 ◆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기간(2015.03.01~2021.09.10) 동안 미중 정부 간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 혹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존재하였음(이 기간 동안 미중 정부 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GDELT에 관련 기사가 많은 사건 위주로 정리함).
 - 2015년 4월 중국,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에서 비행 중인 미국 정찰기에게 철수할 것을 지시. 하지만 미 정찰기는 국제공역(空域)을 비행 중이라며 이를 무시.
 - 2015년 5월 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무장에 대하여 비난. 중국은 이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반박.
 - 2016년 5월 미국, 국방부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인도 국경, 파키스탄,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의 중국군 증강에 대해 경고함.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중국의 의도와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같은 달, 미국 정찰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이에 중국은 전투기를 보내 견제.
 -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통화.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차이잉원 총통의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거절할 것을 요청 및 경고.

미중 관계는 양국의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을때보다 정부 간 관계만을 살펴보았을 때 그 변동폭이 더 컸음.

2020년 초중반 미중 정부간 관계는 미중 모든 행위자 간의 관계보다 더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음.

- 2017년 1월 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겠다고 표명.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을 비난.
 - 2017년 12월 중국, 미 군함의 대만 입항은 미중 협력 관계 및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2018년 9월 미중 군함, 남중국해에서 서로 견제. 또한, 미국 폭격기는 남중국해 상공 비행. 이에 대해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맞섬. 같은 달,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
 - 2018년 10월 중국,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
 -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담장에서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비난.
 - 2019년 12월 미국 하원, 홍콩인권법에 이어 신장위구르인권법 통과. 이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비난.
- ◆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음.
- 2018년 3월부터는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4월, 7월, 8월, 9월에 걸쳐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그림 2) 2018년 7, 8, 9월 중국의 대미 부정적인 행동은 이를 반영). 2018년 12월,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함. 하지만 같은 달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멩완저우를 체포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청. 중국은 이에 반발.
 - 미중 양국 간 보복관세 부과 행위는 2019년 5월, 6월, 9월에도 계속됨.
 - 2020년 1월, 양국은 마침내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발표함에 따라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임. 2020년 2월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가 발효됨.
- ◆ 2020년은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연도임.
- 2020년 1월 미국,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 정부의 투명성에 대해 염려 표명.
 - 2020년 3월 미의회 및 정보기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염려 표명.
 - 2020년 4월 미국 미주리 주 법무장관, 중국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은폐, 왜곡하였다며 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중국은 이를 일축.
 - 2020년 4월 미 군함, 남중국해 항해. 이에 중국은 미국의 행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기에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함 (이외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사건은 연구대상 기간 내 끊임없이 발생함).

- ◆ 2020년 7월에는 미중 간의 갈등 사건이 다른 기간보다 많았음.
 - 중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보도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리석은 아이디어’라고 입장 표명.
 - 같은 달, 미국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
 -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5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 서명.
 - 2020년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내에서 중국 기업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WeChat)’ 사용 금지 행정명령 서명.
- ◆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중 관계는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았음. 하지만 2021년 7월, 미국은 중국이 2021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지목, 비난함.

2020년 7월에는 미중간의
갈등 사건이 다른 기간보다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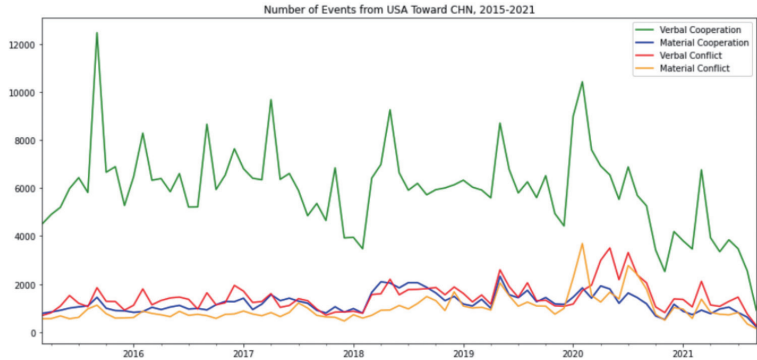
Ⅲ. 사건 유형별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 ◆ 지금까지 2015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 10일 사이 미중 간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요약정리해보았음. 다음은 월별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을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임.
- ◆ GDELT는 CAMEO 체계에 따라 분류 된 사건들은 다시QuadClass 항목에 따라 언어 협력(Verbal Cooperation), 행동 협력(Material Cooperation),²⁾ 언어 갈등(Verbal Conflict), 행동 갈등(Material Conflict)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박성준 2021).
 - 사건 유형 01~05: 언어 협력(Verbal Cooperation)
 - 사건 유형 06~09: 행동 협력(Material Cooperation)
 - 사건 유형 10~14: 언어 갈등(Verbal Conflict)
 - 사건 유형 15~20: 행동 갈등(Material Conflict)

2) “Material”은 사전적으로 “물질적” 혹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Material Cooperation”과 “Material Conflict”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조를 제공하다(provide aid), 조사하다(investigate), 물리력을 과시하다(exhibit force posture), 공격하다(assault) 등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Material”을 “행동”으로 번역하고자 함.

- ◆ <그림 3>과 <그림 4>는 미국이 행위자(actor1), 중국이 대상자(actor2)인 경우, 즉 미국이 중국을 향해 행한 행동의 사건 횟수를 QuadClass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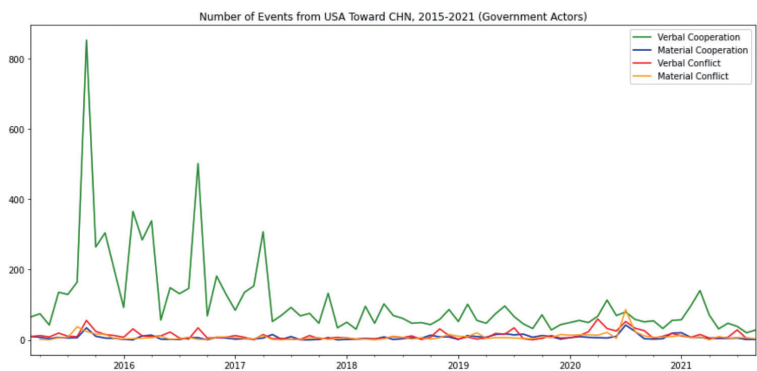
<그림 3> 사건 유형별 미국의 대중 사건량 변화 추세 (QuadClass 1-4)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對中) 사건은 언어 협력 유형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0년 이전까지는 행동 협력과 언어 갈등이 비슷한 수준의 사건량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는 언어 갈등 사건 수가 더 많아짐.

- ◆ 우선 <그림 3>에 드러나듯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對中) 사건은 언어 협력 유형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0년 이전까지는 행동 협력과 언어 갈등이 비슷한 수준의 사건량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는 언어 갈등 사건 수가 더 많아짐.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등에 따라 양국 사이에 언어 갈등과 행동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발생하였음.

<그림 4> 사건 유형별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사건량 변화 추세 (QuadClass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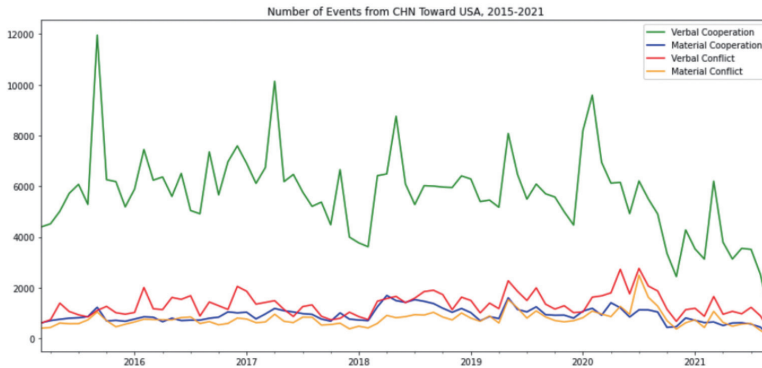


- ◆ <그림 4>는 미국 정부 관련 행위자들이 중국을 향해 행한 행동의 사건 횟수를 QuadClass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냄. 이 경우에도 언어 협력이 다른 유형의 사건들보다 앞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6년까지는 언어 협력이 월에 따라 800건 이상, 400건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많았음.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는 언어 협력 사건량이(여전히 다른 사건 유형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급격히 하락하였음. 이는(미국 정부 외에 미국 관련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그림 3>에 나타난 추세와는 다른 결과임. 즉, 다소 변동은 있지만 사건량으로 비추어 볼때,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 행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언어 협력을 보이거나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언어 협력 사건량은 급격하게 하락함. 또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전체 사건에서 언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수준 하락하였음.

- ◆ 바이든 정부 초기인 2021년 상반기에 언어 협력 사건량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중하반기 들어서며 다시 그 사건량은 하락하였음.
- ◆ 한편,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책임론 제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에 따라 양국간 언어 갈등과 행동 갈등 사건량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그림 5>와 <그림 6>은 중국이 행위자(actor1), 미국이 대상자(actor2)인 경우, 즉 중국이 미국을 향해 행한 행동의 사건 횟수를 QuadClass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냄.

<그림 5> 사건 유형별 중국의 대미 사건량 변화 추세 (QuadClass 1-4)



- ◆ <그림 5>에 드러나듯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포함한 중국의 대미(對美) 사건은 언어 협력 유형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다만 2020년 들어 언어 협력 사건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사건량에서 언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대중 행동 협력과 언어 갈등이 비슷한 수준의 사건량을 보였음. 하지만 <그림 5>에 나타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 행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언어 협력을 보이거나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언어 협력은 급격하게 하락함. 또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전체 사건에서 언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수준 하락하였음.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포함한 중국의 대미(對美) 사건은 언어 협력 유형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다만 2020년 들어 언어 협력 사건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사건량에서 언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난 중국의 경우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그리고 2019년 등 2020년 이전에도 대미 언어 갈등이 행동 협력 보다 많은 기간이 존재함. 이어서 2020년에는 언어 갈등 사건량이 다른 시기보다 많아졌으며 동시에 행동 갈등 또한 연구대상 기간(2015.03.01~2021.09.10)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무역 분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양국 사이에 언어 갈등과 행동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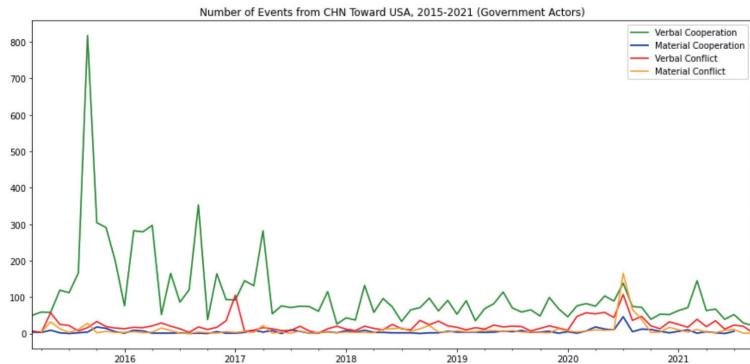
중국의 대미 사건 유형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언어 협력이 가장 많았지만 행동 협력 보다는 언어 갈등이 많은 추세를 보임.

중국은 전체 행동 가운데 미국을 향해 갈등을 표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 행동 보다 중국의 대미 행동이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었음을 의미함.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6년까지는 언어 협력 사건량이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 앞도적으로 많았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는 언어 협력 사건량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행동 갈등이 언어 협력보다 많은 사건량을 보이며 미중 정부간 관계가 매우 안좋았음을 알 수 있음.

- ◆ 요약하면, 중국의 대미 사건 유형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언어 협력이 가장 많았지만 행동 협력 보다는 언어 갈등이 많은 추세를 보임. 이는 중국의 전체 대미 사건 중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frac{VERBAL+MATERIAL}{ALL\ EVENTS} CONFLICT$)이 미국의 전체 대중 사건에서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음을 의미함. 즉, 중국은 전체 행동 가운데 미국을 향해 갈등을 표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 행동 보다 중국의 대미 행동이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었음을 의미함.

<그림 6> 사건 유형별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사건량 변화 추세 (QuadClass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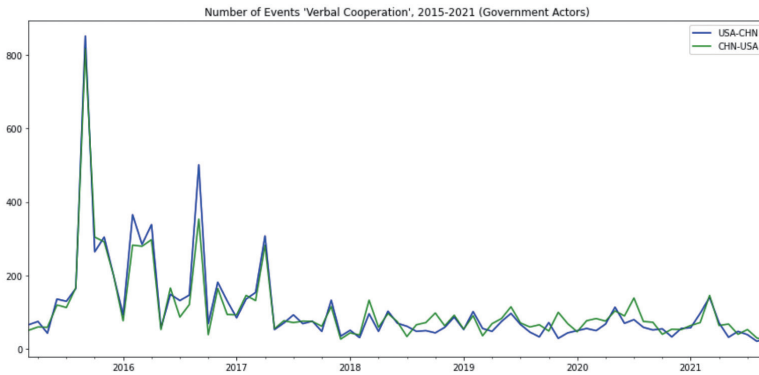
- ◆ <그림 6>은 중국 정부 관련 행위자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 행한 행동의 사건 횟수를 Quad Class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냄. 이 경우에도 언어 협력이 다른 유형의 사건들보다 앞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앞서 살펴본 <그림 4>의 경우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6년까지는 언어 협력 사건량이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 앞도적으로 많았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는 언어 협력 사건량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행동 갈등이 언어 협력보다 많은 사건량을 보이며 미중 정부간 관계가 매우 안좋았음을 알 수 있음.

- ◆ 이는(중국 정부 외에 중국 관련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그림 5>에 나타

난 양상과는 다른 결과임. 즉, 다소 변동은 있지만 사건량으로 비추어 볼 때,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중국의 대미 행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언어 협력을 보이나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언어 협력은 급격하게 하락함. 또한,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행동 전체사건량에서 언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수준 하락하였음. 이러한 양상은 미국,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중 행동 사건량 변화 패턴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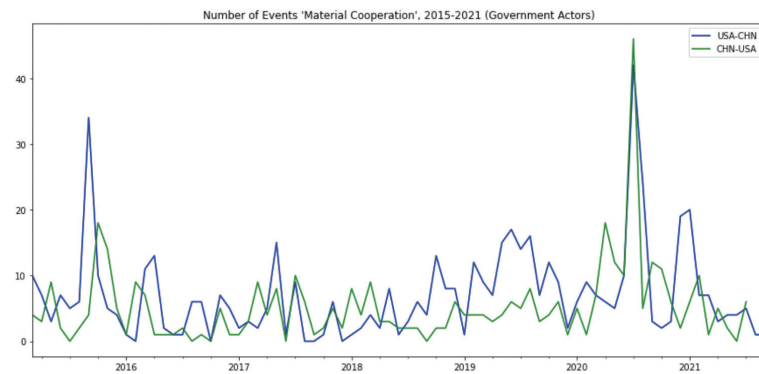
*사건량으로 비추어 볼때,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중국의 대미 행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언어 협력을
보이나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언어 협력은 급격하게
하락함. 또한,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행동 전체
사건량에서 언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수준
하락하였음.*

〈그림 7〉 미중 정부간 언어 협력 사건량 변화 추세



◆ 〈그림 7〉은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언어 협력 사건량을 비교한 결과임.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중 양국 정부 모두는 2016년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어 협력 사건량을 보였음. 하지만 2017년 상반기 이후로는 언어 협력 사건량이 하락하여 2021년 9월까지 월 200 이하를 수준을 보임. 다만 언어 협력은(2020년 7월을 제외하고) 여전히 양국 정부간 발생한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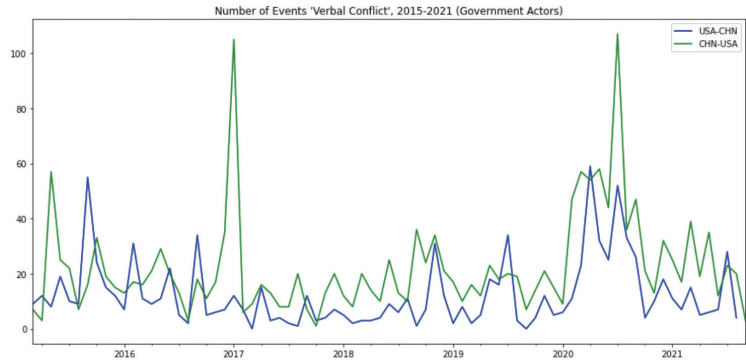
〈그림 8〉 미중 정부간 행동 협력 사건량 변화 추세



◆ 미중 정부간 행동 협력 사건량은 언어 협력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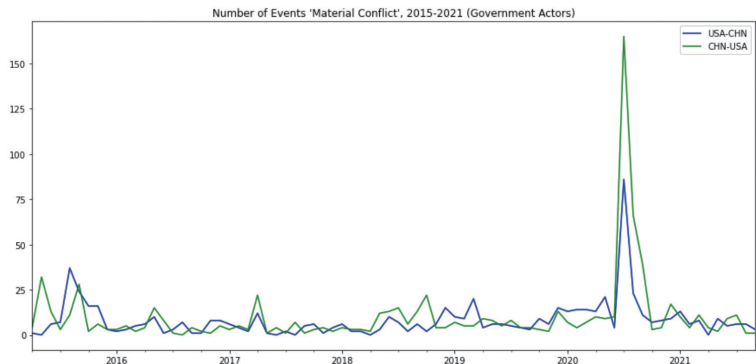
2015년 3월부터 2021년 9월 중 미국이 중국을 향한 행동 협력이 몇몇 시점을 제외하고는 반대의 경우 보다 많았음.

〈그림 9〉 미중 정부간 언어 갈등 사건량 변화 추세



- ◆ 미중 정부간 언어 갈등 사건량은 대부분의 기간동안 중국이 미국보다 많았음. 사건량도 미중 정부간 행동 협력보다 매월 많은 수준임. 중국의 경우 매월 대미 행동 협력보다 언어 갈등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
- ◆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에는 미중 모두 양국에 대한 언어 갈등 사건의 양이 급격하게 상승함.

〈그림 10〉 미중 정부간 행동 갈등 사건량 변화 추세



- ◆ 미중 정부간(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을 다루는) 행동 갈등은 2020년 이전까지 월 25회 미만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20년 7월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후 행동 갈등 사건량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옴.
- ◆ 요약하자면, 2017년을 전후로 미중 정부 간에 발생하는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이 자치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하지만 여전히(2020년 7월과

2017년을 전후로 미중 정부 간에 발생하는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이 자치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국가 간에 발생하는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이 가장 많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두 강대국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그림 2>에도 나타나듯이 미국과 중국의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값은 0.0 이상을 기록하는 월이 더 많았음).

- ◆ 다만 이처럼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미중 정부간 관계 양상이(중국의 성장 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하지만 여전히 두 국가 간에 발생하는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이 가장 많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두 강대국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IV. 결론

- ◆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5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최근 약 6년 6개월 간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양상을 알아보고자 함.
- ◆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았듯이 미중 관계는 양국의 모든 행위자의 행동을 포함하였을 때는 2020년 중반 외에는 부정적이지 않았음(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값이 2020년 중반을 제외하고는 0.0에서 2.0 사이에 형성됨). 하지만 두 국가 정부 간의 관계는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값 변동폭이 더 컸음(-2.0에서 3.0). 특히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행동이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행동 보다 부정적인 기간이 많았으며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값이 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중국이 미국보다 많았음. 이는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행동보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함.
- ◆ 또한, <그림 9>와 <그림 10>에도 나타나듯이, 중국 정부의 대 미국 정부 행동이 부정적인 경우가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부 행동이 부정적인 경우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 미중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연구대상 기간 중 2020년이 가장 부정적이었음.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 홍콩보안법 관련 갈등, 남중국해 갈등, 그리고 무역분쟁, 중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미국의 우려 등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임.
- ◆ 본문에 나온 그래프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미중 간의 경제력, 군사비 지출 격차 감소가 곧바로 갈등의 증가, 미중 관계 악화 추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미중 모든 행위자 간, 그리고 미중 정부 간에 발

미중 간의 경제력, 군사비 지출 격차 감소가 곧바로 갈등의 증가, 미중 관계 악화 추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미 행동이 미국의 대중 행동보다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라는 점은 향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판단됨.

생하는 사건들 가운데 여전히 언어 협력이 가장 많다는 점이 그 구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임.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미 행동이 미국의 대중 행동보다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라는 점은 향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판단됨.

- ◆ 이러한 예측대로 중국이 점점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면 이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특히 미국은 동맹관계를 내세우며 한국이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할 수 있음. 반면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 한국이 중국과 정치외교적으로 더 가까워 지기를 요구할 수도 있음. 이에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맞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이 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각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임.
- ◆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한 자료는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 다만 본 보고서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음.
 - GDELT는 언론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본 보고서에 나타난 미중 관계 변화 추세는 언론기사를 통해 드러난 관계라고 봐야 할 것임.
 - <그림 3>~<그림 10>에 나타난 미중 간의 사건량 변화 추세는 단지 언론보도량의 변화인지 실제로 두 국가 간에 발생한 사건량의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그림 4>와 <그림 6>에 나타나듯 미중 정부간 발생한 사건량이 2015, 2016, 2017년을 거치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이 경우 사건량은 많지만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 값이 낮은 달과, 사건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 값이 높은 달을 비교할 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함(저자는 골드스타인 척도 월평균 값의 절대수치를 통해 미중 간의 관계의 긍정 및 부정 수준을 판단함. 다만 사건량 변화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전자가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완하고자 함).
- ◆ 본 연구는 두 국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측정하려 시도하였다는 데 장점이 있음.

- ◆ 다만 GDELT에 머신코딩을 통해 분류, 분석, 코딩 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예를들어, GDELT를 사용한 기존 연구문헌에 따르면 TABARI는 “attack”이 단순 구두 비판을 의미하는지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Kagotani et al. 2014).
- ◆ 또한(GDELT가 각 언론기사의 내용을 머신코딩할때 사용하는) CAMEO 분류 체계는 각 사건을 QuadClass에 따라 언어 협력(Verbal Cooperation), 행동 협력(Material Cooperation), 언어 갈등(Verbal Conflict), 행동 갈등(Material Conflict)으로 분류함. 하지만 각 사건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이슈별로 분류하지는 않음. 따라서 두 국가가 어느 분야에서 협력하고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예를 들어, 미중 관계의 추세 변화를 남중국해 문제, 무역 문제, 코로나19 관련 문제 등 각 이슈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면 외교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박성준. 2021.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Т를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 13. 국회미래연구원.
- Kagotani, Koji, Kimura, Kan, and Jeffrey R. Weber. 2014. “Democracy and diversionary incentives in Japan-South Korea dispute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4(1): 33-58.
- Lemke, Douglas, and Jacek Kugler. 1996. “The Evolution of the Power Transition Perspective.” In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eds.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33.
- Mearsheimer. John J.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 160-162.
- Mearsheimer. John J.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381-396.
- Organski, A.F.K. 1968. *World Politics 2nd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y, Denny. 1994.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1): 149-168.
- Roy, Denny. 1996. “The “China threat” issue: major arguments.” *Asian Survey* 36(8): 758-771.
- Roy, Denny.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2): 305-322.

❖ 저자 약력

■ 정승철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 취득.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방법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on East and Southeast Asians' Views of Chin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Determinants of China-ROK Relations, 1993-2018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Who Supports the US-led Global Order? An Empirical Analysis Using Survey Dat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Effect of Partisan Identity on Individual's Economic and Political Attitude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outh Korean Case (*Korea Observer*), The Impact of the US and China on ROK-DPRK Relations, 1993-2019: An Empirical Analysis using Event Data (*Asian Survey*, forthcoming)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애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